

대숲에 부는 바람 風竹

전통, 현대와 만나다... 현대, 전통을 살피다



국립광주박물관, 내년 2월2일까지 국보 등 150점 전시

“맑은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/ 대숲을 지나며
썩썩 소리 내누나/ 썩썩 우는 소리 그치지 않으니/ 종
일토록 맑은 음향이 좋아라/ 바람이 없으면 대나무 울
지 못하고/ 대나무 없으면 바람도 울지 못하지/~/ 두
아름다움이 서로 합쳤으니/ 그 소리 어찌 맑지 않을조
나.”(이응희 ‘풍죽행’ 중)

잡자는 대숲을 깨우는 바람을 만날 수 있었다. 바람
에 몸을 맡긴 대나무 잎사귀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내
는 술렁임이 귓가에 와닿았다.

27일 국립광주박물관(관장 조현종)에서 열리고 있
는 특별전 ‘대숲에 부는 바람, 풍죽(風竹)’을 찾았다.
이번 전시는 지난 2009년 ‘그림으로 피어난 매화, 탐매
(探梅)’전에 이은 두 번째 사군자 특별전이다.

이번 ‘풍죽’전에는 국보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에
서 열렸던 ‘한국미술 5천년전’, 2002년 한일월드컵을
기념해 일본에서 진행됐던 ‘한국의 명보(名寶)’전, 호
주와 독일 등 국외전시에서 출품됐던 150여점의 작품들
이 전시되고 있다.

떨어지는 겨울비 소리를 들으며 박물관에 들어서자
사진작가 라규채씨의 ‘대나무(Bamboo) #35’ 작품을
배경으로 놓여 있는 국보 제103호 ‘중흥산성 쌍사자석
등’이 눈에 띄었다. 바람에 몸을 맡긴 푸른 대나무를
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한 사진을 배경으로 서 있는 쌍
사자석등의 자태가 이채로웠다.

로비를 지나 2층 기획전시실로 향하자 바람을 품은
대나무가 모습을 드러냈다.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등
문화재와 현대미술 속에 표현된 대나무를 함께 만날

수 있었다.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색
다른 감동을 선사한다. 현대미술의 기반이 된 과거의
모습들을 살펴보고, 과거에서 다시 현대로 이어지는
순환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.

1부 ‘현대 미술의 대나무’에서는 한국화, 서양화, 사
진, 관화,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현대미술 속에 표현된
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다. 송필용, 임남진, 김범석,
이인, 한희원, 이이남, 라규채, 강익중씨 등 참여작가
들은 대나무의 기개와 흔들림 등을 먹과 유화, 아크릴,
알루미늄, 미디어아트 등 서로 다른 조형언어로 선보
였다.

알루미늄과 아크릴로 제작된 권기수씨의 작품과 나
무에 나타난 대나무 줄기에 물감을 흘려려 잎사귀를
표현한 작품들이 이색적이었다. 또 김대수씨의 ‘As
people’은 6쪽 병풍을 옮겨온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.

현대미술을 지나자 “마음속 대나무를 완성하고, 붓
을 들고 바라보아야 대나무를 그릴 수 있었다”라는 말
처럼 선조들이 마음으로 그린 대나무를 만날 수 있었
다. 달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를 보고 그렸다는 묵죽도,
한겨울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대나무의 기개를 그린
권도인의 세한도를 비롯해 선조들의 효와 신의를 느
낄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다.

종이와 비단을 스치는 먹의 농묵으로 표현된 작품들
은 한참을 서서 바라보게 만들었다. 팔십 노인 유덕장
이 젊은 벗을 위해 그렸다는 묵죽도에서는 ‘어떻게 삶
을 살아야 하는가’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는 듯했다.

조선시대 3대 묵죽화가인 이정, 유덕장, 신위의 묵죽



권기수 작 'In the Forest'

도를 지나자 국보 제176호 ‘홍치 2년명 백자 청화 소나
무 대나무무늬 항아리’와 국보 제166호 ‘백자 철화 매화
대나무무늬 항아리’, 보물 제1168호 ‘청자 상감 매화 대
나무 학무늬 매병’이 전시되고 있었다. 청자와 백자에
한 편의 시처럼 녹아든 대나무가 묵죽도와 죽석도를 배
경으로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자태를 뽐냈다.

3부 ‘대숲에 부는 바람’에서는 묵죽의 대가 김규진
과 그의 제자 이응노의 작품들을 만났다. 이응노 작품
에서는 대나무 그림의 전통과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.
전시는 내년 2월2일까지다. 문의 062-570-7000.

/김경민기자 kki@kwangju.co.kr

‘꽃’ 갤러리 리채 류재웅 초대전



‘비밀의 정원’

갤러리 리채는 다음달 4일까지 서양화가 류재웅씨
를 초대해 ‘꽃으로 부터’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.

계절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류씨는
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선보여온 ‘아름다운 산하’, ‘산수
유 마을’ 연작 등과 함께 새롭게 ‘꽃’ 연작을 선보인다.
화려한 색채와 거칠고 두껍게 덧칠해진 붓 터치가
만들어내는 꽃들의 향연이 갤러리를 꽃향기로 가득
채우는 듯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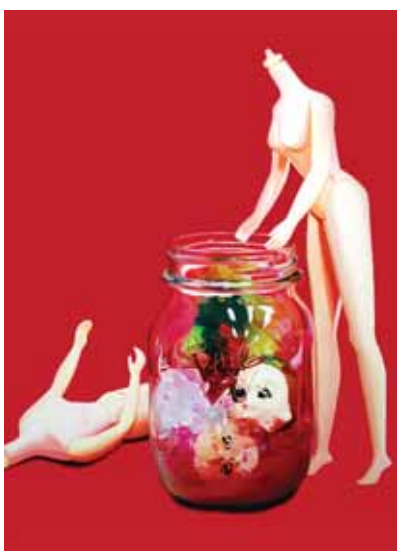
이번 꽃 연작은 작가가 유럽여행 중에 찍은 화려한
꽃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.

‘산수유 마을’ 연작의 서정성과는 다른 화려함과 힘
찬 에너지가 느껴진다. 그 이면에는 작가의 망설임, 서
성거림, 깊은 사색 같은 느낌이 녹아있다.

류씨는 “그리는 대상이 굳이 꽃이 아니어도 된다”
라며 작품 속 꽃들이 깊은 성찰을 담아내는 표현 양식
이라고 설명했다.

조선대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류씨는 모
두 16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, 대동미술상을 수상
했다. 문의 062-412-0005. /김경민기자 kki@

고마음씨 ‘집착’ 어등미술제 최고상



고마음 작 '집착'

광주시 광산문화원이 주최하고 어등미술제 운영위
원회가 주관하는 제23회 어등미술제 포트폴리오공모
에서 고마음(여·25)씨의 ‘집착’이 최고상인 어등미술
상(상금 300만원)을 수상했다.

어등미술제 운영위원회는 최근 광산문화원에서 포
트폴리오 32점, 서예·문인화 188점에 대해 심사를 진
행한 결과 이 같이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.

포트폴리오 부문 우수작가상(상금 100만원)에는
서영기(31), 신진작가상(100만원)에는 이준현(26)씨
가 각각 선정됐다. 올해 첫 공모한 서예·문인화 부문
에서는 최동문(52)씨의 ‘이규보선생 시’와 박지영(여·
45)씨의 ‘한가로운 날’이 각각 서예와 문인화 부문 대
상을 차지했다. 서예부문 우수상에는 정민규(35)씨의
‘능가월령가’가 뽑혔다.

시상식은 12월20일 오후 3시 유·스퀘어문화관 금호
갤러리에서 열리며, 입상작은 12월20~26일 같은 장
소에서 추천·초대작가, 운영·심사위원 작품과 함께
전시된다. 문의 062-941-3377.

/김경민기자 kki@kwangju.co.kr

‘지방 자치와 여성 정책’

광주여성재단 오늘 포럼

광주여성재단은 28일 오후 4시 김대
중컨벤션센터에서 ‘지방 자치와 여성
정책’을 주제로 제2회 광주젠더포럼
정기총회 및 포럼을 개최한다.

정기포럼은 ‘성평등 도시-꿈꾸는 광
주여성들의 리얼토크’로 진행된다.

방승인 나선희씨의 진행으로 열리는
토론에서는 30대, 40대, 50대 여성 세
명이 ‘일하고 돌보며 사는 워킹맘 이야
기’, ‘여성문화인력으로 살아가기’, ‘안
전하게 살고 싶은 여성 이야기’ 등 세
가지 사례를 발표한다. 생애 주기별 여
성 고용의 문제, 성평등 의식 확산, 광
주여성 안전 실태 등에 대한 방안을 찾
아보는 자리이기도 하다.

포럼 후에는 정기총회와 회원간 네
트워크 시간도 마련된다.

광주젠더포럼은 전문여성네트워크
이자 여성 정책발굴을 위한 광주여성
재단의 협력 기구로 현재 7개 분과 300
명 회원이 활동중이다. 문의 062-670-
0515. /김미은기자 mekim@

since 1982

창업 31주년 KJBH 국제보청기

www.kjhr.com

- ✓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**똑똑하게 들립니다.**
- ✓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**거부감이 없습니다.**
- ✓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**가격이 부담없습니다.**

디지털 보청기(미국·독일·덴마크)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

본 점 062)227-9940	충장점 062)227-9970
목포점 061)262-9200	장흥점 080)222-9975
서울점 02)765-9940	순천점 061)752-9940

Shin Yang Park Hotel 2013년 송년 디너쇼

남진

— 프로그램 —

18:30 입장
19:00 식사
20:00 공연
21:30 퇴장

일시 | 2013년 **12월 12일(목)** 18:30

장소 | **신양파크호텔** 1층 그랜드 볼룸

165,000(세금포함)

예약문의 | 062)228-4711~2